

5월 그 날 '상생 공동체' 만드는 인권 지킴이

〈목차〉

제1부 되짚어 본 5·18

제2부 민주·인권의 가교

제3부 긍정에너지로 승화



노월을 넘어 광극을 넘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80년 5·18이 꽃피던 사회는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서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생의 공동체'였다. 광주·전남 지역민은 이를 위해 30년 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이 군부 독재를 상대로 맞서 싸운 5·18 민주항쟁은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 5·18 30주년을 맞는 지금 광주·전남에는 총·칼, 불법 연행·구금 등으로 자행되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는 사라졌지만 대신 합법으로 위장된 교묘한 인권침해는 일부나마 남아있다.

이는 국가와 개인, 단체, 사회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감시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다.

◇5·18의 꿈, 상생의 공동체=개소 6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개인의 인권보호와 존중을 통해 '상생의 공동체'를 소망했던 5·18의 정신을 잇고, 지역민의 인권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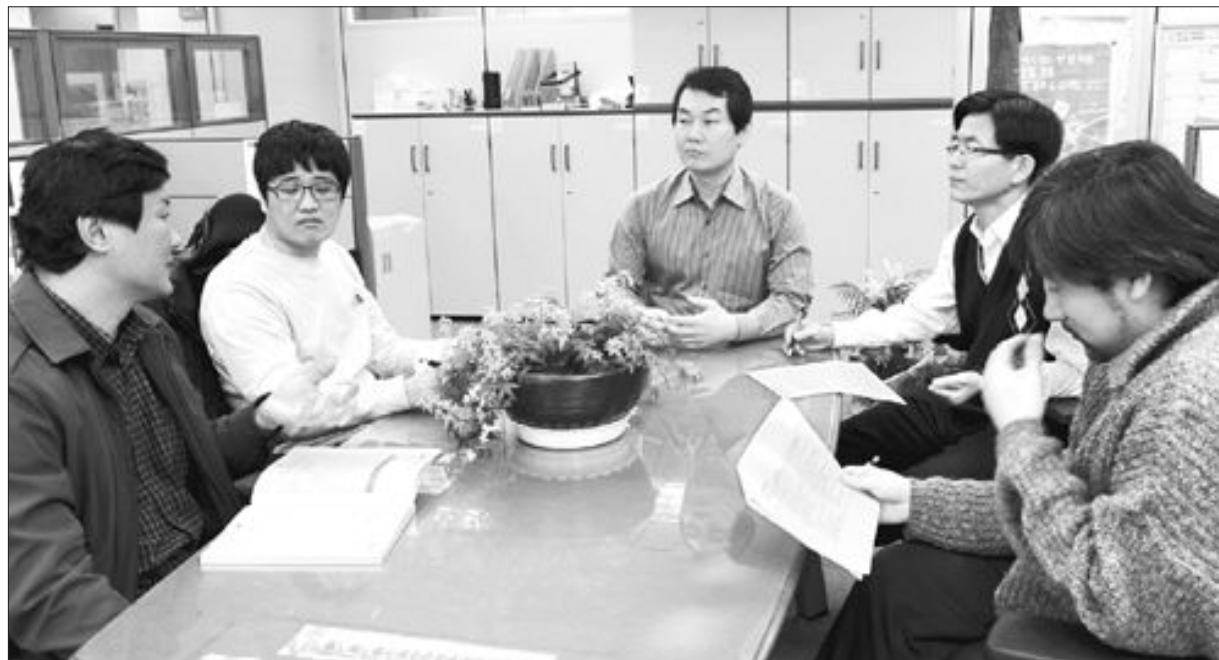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는 광주·전남과 전북, 제주를 관할에 두고 국가기관이나 개인, 단체, 사회로부터 침해받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2005년 10월 문을 연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해 말까지 1만4천382건에 달하는 진정·상담·안내(민원)를 접수받아 처리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다양한 인권 교육과 관리구제를 통해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역민의 거리를 좁히고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해에만 교정직 공무원과 검·경 수사기관, 일반 공무원,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101차례에 걸쳐 4천90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펼쳤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인권테마역사 방문프로그램에는 인권테마역사(서구 마북역)를 교육공간으로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들과 어린이집 원생들까지 22차례에 걸쳐 1천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타면서 장애체험을 하거나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 또 인권영화 감상, 인권영화 공모, 인권테마열차 운영, 장애인 공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민이 보다 쉽게 '인권'을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광주인권사무소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사실상의 인권조례(광주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끌어낸 점이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가 진정한 의미의 인권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시는 물론 각 기초자치단체에 '인권 전담 부



지난 5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이정강 소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직원들이 회의를 열고 있다. /나평주기자 mjna@kwangju.co.kr

진정·상담·안내 1만4천건 처리 전국 첫 광주 인권조례 산파역 개소 6년...지역민 파수꾼 자리

서'를 만들고 인권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 등이 들어선 '인권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인권이 무엇인지, 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지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소장은 "전국 최초로 사실상의 인권조례를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지만, 인권보호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상생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인권센터 건립과 각 지자체에 인권 전담부서를 만드는 작업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권 지킴이의 길='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인권의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인권 보호와 신장의 정점에는 광주인권사무소와 이정강 소장이 있다. 광주인권사무소를 이끄는 이정강(48) 소장은 20년 이상 활동가로서 인권 지킴이의 길을 걷다가 지난 2005년 광주인권사무소 개소와 함께 활동가의 옷을 벗고 인권사무소 소장이라는 옷을 입었다. 독일한 기독교도인 이 소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적을 두고 활동가의 길을 걸어들었다. 1982년 광주민주문화회 교원 실무간사를 시작으로 ▲1987년 광주·전남 기독교문화운동협의회 회장 ▲1990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1992년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집행위원장 ▲1999년 광주공공언론평화회의(KORP) 사무총장 ▲2000년 장기수 이복송환을 위한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장 ▲2005년 6·15 남북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기획단장 및 상임 집행위원장 등을 맡았다.

인권활동가로서 초창기 그는 풍물, 관화, 연극 등 문예운동을 통해 시대의 약자인 민중의 삶을 엿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후 비전향 장기수들을 비롯한 양심수들을 만나면서 사상이나 제도, 종교보다 개인의 '인권'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확신을 갖고 인권활동의 길에 매진하게 됐다.

인간의 본성보다 제도와 사상의 편향성으로 인해 '시대적 죄인'으로 낙인찍힌 비전향 장기수들의 삶을 들여다 봤다. 수감중이거나 뿔뿔이 흩어져 은둔하다시피한 그들을 수소문 끝에 만나고, 신변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부터 시작해 자매결연과 복환에 있는 가족의 생사확인을 도왔다.

이 소장은 "기나 긴 감옥 생활의 후유증으로 5명의 장기수가 숨지는 일을 목격하고, 이복송환 운동을 벌인 끝에 꿈에 그리워 했던 가족 결별로 6명의 장기수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봤다"며 "이런 일들을 보고, 직접 겪으면서 인권보호와 신장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다는 확신이 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서른살의 5·18에게

류동훈

"치안 공백속 범죄 한 건 없었던 '절대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자"

"시민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워봅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5·18항쟁 최후의 날인 80년 5월27일 새벽 3시에 시내 전역을 돌며 애절한 목소리로 가두방송을 했던 박영순씨와 이경희씨의 육성이다. 많은 시민들은 이불을 둘러쓰고 그 소리를 들으며 흐느꼈었다. 도청 최후의 항전 때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본인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분들은 거기서 그렇게 남았다. 무엇을 위해서일까? 후세의 역사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서 죽음의 길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제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5·18은 많은 변화들을 겪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5·18정신을 부활시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 민주주의는 멀기만 하다. 정치에서 지역독점 구도가 깨지고 시민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의미 있는 정치구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 각종 친목모임 등에서 서로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지역사회 아젠다 형성 과정에 무작정 내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 이것들이 5·18 민주정신의 실천이다.

또한 5·18정신은 지역 사랑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은 수도권 집중의 현대사 과정에 희생되어 소외와 낙후의 대명사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지역 기업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응원



하며, 내 곁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지역사랑운동이다. 5·18때 광주는 치안 공백 상태에서도 범죄 한 건 없이 부상자들을 위해 서로 헌혈하고, 주먹밥을 나누었으며, 거리를 청소했다. 이를 학자들이 다시 사용되게 하고, 깨끗한 물을 위해 폐식용유를 활용한 친환경 비누로 세수를 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모두 '절대공동체' 정신의 부활이다.

5·18정신은 또한 풍부한 상상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도청 앞 분수대에 솟아오르는 분수처럼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상상력으로 창조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행복발전소 행복문화사업단 부부장〉**

영 / 학 / 안 / 내

영화에 빠지는 재미

메가박스

1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전제) 최고급판
2관	의형제(154)
3관	포스카인드(154)
4관	평행이론(154)
5관	(3D)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전제)
6관	우리가 꿈꾸는 기적-인빅터스(전제)
7관	러블리본즈(154)/클로이(184)
8관	하모니(124)
9관	디어 존(124)

• 호날두차단형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관료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 연변국사거리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우리가 꿈꾸는 기적-인빅터스(154)
2관	러블리본즈(154)/클로이(184)
3관	포스카인드(154)
4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전제)
5관	디어 존(124)
6관	하모니(124)
7관	의형제(154)
8관	평행이론(154)
9관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124)
10관	의형제(154)

필트사관 영화시각 • 예매: www.joycbc.com/ 1588-7941
상무점 (상무점과 이민로 사이) 여남점 (무역화면동점)



1588-7941 상담형영영 행복-(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1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전제)
2관	하치이 이야기(전제)
3관	하모니(124)
4관	의형제(154)/밀크(154)
5관	포스카인드(154)
6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전제)
7관	디어 존(124)
8관	디어 존(124)
9관	클로이(184)
10관	의형제(154)

• 5000대 방문 주차장(3시간무료) • 305 대일 심야
• 이틀 통신판 OK 캐쉬백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스포츠점 288-5757 • 하이 병점점 282-0825
• 하이 스포츠점 281-5080 • 하이 병점점 282-0825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hema.co.kr/ 1588-9120
전대무선 하미스포박스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디어 존(124)
2관	하모니(124)/클로이(184)
3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전제)
4관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124)/아바타(124)
5관	포스카인드(154)/러블리본즈(154)
6관	평행이론(154)
7관	의형제(154)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씩잡히는 영화상회 • www.cinusa.co.kr/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의형제(154)
2관	의형제(154)
3관	디어 존(124)
4관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124)
5관	올프맨(184)
6관	클로이(18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리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세무소 기점 • www.primuschema.com/www.jellicinema.co.kr •
홍성로 3기 ARS 전화예매 ☎227-1960